

“환경·개혁분야 관심에 위안”

총 22건 불과... ‘겉 불안’ 내용 빈약 봄 가을 집중보다 연중 진행 아쉬워

94 불교관련 학술결산

올해 한해동안 열린 불교학 관련 연구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엄은 모두 2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22건의 학술행사는 순수 불교학 연구분야와 인접학문 또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고르게 난의 됐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된 세미나가 4건이나 열렸으며, 개혁관련 발표회도 4건 개최됐다. 이밖에 복지·교육관련 발표회도 3건이 열려 순수학술행사 10건과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10월과 11월에 학술행사가 7건, 4건으로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시기적인 편향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한 5월달의 학술행사(4건)와 함께 춘계 추계로 집중적으로 열리는 학술행사는 그동안 주제의 중복과 불자들의 참여를 줄이는 등 불교 학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돼 왔으나 예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가장 관심이 고조된 분야는 환경문제였다. 환경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환경영향평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환경 주제 세미나는 4월7일 부산일보사에서 열린 ‘이땅의 환경을 살리기 위한 불교 환경세미나’였다. 낙동강을 오염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한 부산 불교대학원회가 주최한 이날 오후식소장과 저녁 환경연구소 오승석소장과 전동태대 박규상교수가 ‘환경문제 발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올해 학술행사 중 환경관련 학술행사가 가장 풍성했다. 사진은 11월 2일 열린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불교의 환경관련 사상’과 ‘환경문제에 대처할 기본철학으로서의 불교적 사고방식의 제언’을 발표해 환경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 교수불자연합회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와 환경’이란 주제로 사상·법·생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환경문제를 조명했다.

세번째는 5월21일 한국종교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 발표회로서 동국대 김용정교수가 ‘생태학과 불교의 공생론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네번째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창립기념 학술대회. 지난 90

년부터 환경운동을 벌여온 불교환경교육원이 보다 활력적인 불교내 환경사업을 전개한다는 취지아래 11월2일 창립대회 및 ‘환경위기의 불교사상’이란 주제의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

이들 발표회는 공통적으로 환경문제가 서구사상과 산업화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전제아래 불교의 무아상과 연기론적인 인식정환에 의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불교 개혁관련 학술행사로서 4월28일 불교방송 등 3개단체 주최 ‘불교개혁 대토론회’와 6월18일 정혜도당 주최 ‘종단 개

혁 및 사회적 역할 모색을 위한 비구니 의식개혁 세미나’는 개혁과정에서 있던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5월13일 불교문화연구원 주최의 ‘개방화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란 주제의 세미나는 국제화 개방화 조류속의 한국 불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원효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해 교계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재경 기자)

그 해결방법론을 모색했다.

불교 복지·교육관련 세미나로는 6월8일 열린 중앙승가대 주최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과제와 방향’과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주최 ‘21세기와 개혁기의 불교사회복지의 과제’가 열렸다. 이들 세미나는 불교 복지의 현실적 연구를 통해 21세기와 개혁기에 맞는 불교 복지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순수 학술세미나는 5월23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주최 ‘국제 불교 학술발표회’와 같은 달 27일 한국불교학회의 주최로 열린 ‘삼산사상의 현대적 조명’으로 시작했다.

9월까지 학술행사의 공백기를 지난후 10월달부터는 ‘세계 전자불전학회’를 시작으로 ‘보조지눌과 태고보우의 선사상’, ‘성철스님의 생애와 사상’, ‘원효의 생애와 사상’ 등 대형 학술 발표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특히 장경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세계전자불전학회의 한국 불교를 국제적으로 선양하고,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홍보 효과도 높였다. 또한 한국불교연구원 주최로 11월 18, 19일 이틀간 열린 원효와 국제학술회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버트 버스웰교수 등 미·일·불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 동서양을 분분하고 인류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원효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해 교계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재경 기자)

사리신앙은 어떻게 보아야 될지

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리신앙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요?
(대구 북구 침산 3동·배정례)

답 부처님께서 어느 때 아픈 사람을 보러 가셨는데 그 사람이 병석에서 일어나 내려가자 이를 믿우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지인 즉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알면 이 고깃덩이를 보고 고깃덩이가 예를 갖추는 게 달리 무슨 뜻이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꼭 그 말씀뿐만이 아니겠지만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는데 어찌 물질인 사리에 쫓달리겠습니까. 사리를 보되 부처님의 마음을 보세요. 부처님의 마음을 보았다면 그 마음을 지녀라, 마음을 지녔다면 재물로써 여러 중생과 불이 배풀어라, 그래야 가르침에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뿐이지 어찌 사리를 찾고 사리에 매달리겠습니까? 천 리 멀리 떨어진 곳에 사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사리의 근본인 부처님 마음을 내가 지닌

회장과 같아서 마음먹기에 따라 몸 속의 수많은 생명의식물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 시말해 회장이 결정하고 결재를 해야 직원들이 움직이듯이 마음으로 먼저 결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을 찾는 게 기록신앙이 아닌지

문 대학원 학생입니다. 공부할 과제가 많아서 한동안 법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왠지 생활이 무기력해졌듯 하고 매사에 장애가 많은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을 찾기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신앙으로 기우는 것은 아닌지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김철인)

답 그것을 기록이라고 한다면 사는 게 전부 기록이 되겠네요. 내가 내일로 가고 싶어서 절을 찾은 게 왜 기록입니까. 그게 다 당연한 자기 자신의 발현입니다. 바깥 대상에 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말리는 것이고 타력이나 타의에서 해답을 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자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읍선원 대령스님께 물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해 줍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다면 사리는 겉절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잘 헤아려 지혜롭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삼세심 불가득’이 무슨 뜻인지요

문 옛날 덕산스님이 수행시절에 딱딱 노파로부터 ‘삼세심 불가득’의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혔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김성경)

답 덕산스님이 그 당시엔 스스로 금강경에 능통하여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본다고 자랑했으나 문지방을 밟지 못해 딱 한 조각 얻어먹지 못한 것은 학인들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고 봅니다. 남이 불을 쬐주니 환한줄만 알았지 제 마음의 불은 쬐지 못했기 때문에 노파의 한 방망이에 꼭꼭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공에 맡겨 병이 낫는 도리는

문 스님께서는 평소 몸이 아픈 사람들의 호소에 접할 때마다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고 관하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하복래)

답 우리의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먹고(공식), 함께 일하고(공용), 함께 살아가는(공생)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커다란 기업체가 각 부분 부분의 긴밀한 협조속에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이 최고의 의사결정자인 회장의 지휘에 의해 돌아 가듯이 우리 육신도 마음이라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란 육신이라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기 자성자에서 일어나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법인 것입니다. 수행자는 다만 스스로 집착하는 바를 지켜 볼 뿐입니다.

불제자가 진정 추구해야 할 일은

문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고 바야바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정은)

답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넓게 생각한다면 풀 한포기라도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고 스님만이 스승이 아닙니다. 살아다가 강도 짓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달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생각해 보는 것도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풀 한포기, 구르는 풀 하나, 흐르는 물 등등이 모두 스승입니다. 이 세상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기에 일체법을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일체 만물만생, 또는 과거·현재·미래 모든 것을 합쳐서 주인공(空)이라고 한 것이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일체법이 그냥 동굴러집니다.

이것 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산란하게 되기 쉬우니까 주인공! 해놓고 곧장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일체 법을 한군데로 모아 밀고 밀고 지켜보는 그런 참선자가 되는 것, 그것이 불자로서 일상 생활중에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생명존중사상 인류위기극복”

시대·지역·종교 초월한 보편적 가치지녀

동국대 한중광씨 주장

불교 계승상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사형제도·낙태·뇌사 및 장기기증·동물권(動物權)·환경등을 불교적으로 조명하는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와 한중광씨는 ‘불교의 생명사상에 대한 연구’라는 석사 학위 청구논문 통해 ‘20세기말의 현재 인류는 지구상의 남북문제·환경문제 등 생명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고, 21세기 지구공동체 사회에 부응할 새로

운 철학과 실천체계를 불교의 생명사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불교의 생명사상이 우주만물의 근본원리이자 생명의 실상인 연기법과 생명의 참 근원인 불성 그리고 법성(法性)과 자성(自性)에 대한 깨달음의 여법한 구현인 일승보살도를 토대로 해, 시·공과 종교를 초월해서 일체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

불교, 동굴문화에 공헌 데 운동 소장 발표

“16세기 후반 동굴에 들어온 불교가 동굴인의 지성을 확장시켜 고도로 발달된 불교문화의 세계와 결합해 왔다” 동굴과학원 데 운동 어문연구소장은 지난 15일 대우재단 빌딩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단국대 한국민족학연구소 초청 ‘동굴문화 학술발표회’에 참석, ‘동굴의 고대문화’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려 선사와 ‘화엄’ 비교

김윤섭씨 석사논문

불교사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끈 고려 중엽 이후 승려들의 작품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고려대 대학원 국문학과에 재학중인 김윤섭씨는 석사 학위 청구논문 ‘화엄사상의 시적 전파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중 후기 승려들의 한시를 중심으로’에서 지금까지 주로 선(禪)적인 관점에 치중해 논의돼 온 불교시 중에 화엄적 의취(意

趣)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선택,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씨는 고려시대 불교사상이 선교원융(禪敎圓融)적 특성을 지녔다고 보고, 화엄사상을 중심·테마로 해 그와 관련된 승려들의 작품을 검토함으로써 선종 계열 승려들의 선시가 지닌 면모 중의 또다른 일단을 부각시켰다.

“불교시들이 거의 대부분 선종계 고승들의 작품이라 하여 소위 선시라는 범주 안에서 일방(一方)으로 논의하는 것은 그 속에 연계돼 있는 불교사상의 제국면들을 간과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

선관단식

정신 육체를 얻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계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생수,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염분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 북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정신
-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빈혈,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응림선원
■ 안 내 ☎ (0593) 34-1115~6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 모집: 수시접수 (연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도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음음
그 근거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선서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음들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 著, 해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대지관좌선법(마하지관) 1.2
김무득 주석, 각권 8,000원

능엄경연구입문
김진열 저, 15,000원

조선불교유신론
한용운 저, 5,000원

돈오요문
대주해해 저, 해원역, 5,000원

미륵성전
이종익 저, 3,500원

백교회통
이능화 저, 4,500원

.....

도서 **은주사**
출판

서울 종로구 천진동 6번지 ☎ (02) 720-9372 · 3 Fax (02) 723-0646